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닫힌 마음 열린 마음

인생은 짧다, 풀 끝 맺힌 이슬 같다. 스무 살까지는 세월이 더디 가지만 마흔을 넘기면 세월은 날아서 간다. 육체는 나날이 늙어 절반이 병(病)이요, 절반이 어둠이다.

대화 나눌 벗은 갈수록 줄고 삶의 언저리엔 뱀의 허물같은 외로움이 빈 집의 거미줄처럼 널려있다. 금슬 좋던 부부사이에도 쉰내를 풍기며, 보고 듣는 일상이 힘에 겹다. 품으로 낳아 기른 자식들도 주면 좋아하고 현찰 거래가 줄면 멀어지는 세상이다. 정신세계를 밝혀준다는 종교계의 신앙에도 돈이 신(神)이 된지 오래이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마른 손아귀에 잡히는 것은 알곡 없는 검불 떼기의 공허로움이 마른버짐처럼 번질 뿐이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팔자타령으로 위안 삼으려 해도 현실은 톡 쏘는 사이다 맛처럼 대충 눈감아 주거나 넘어가는 법이 없다. 있으면 모이고 없으면 떠난다. 줄때는 엄지척이요 필요할 때는 손사래 치며 멀어져 간다.

장관 집 개(犬)가 죽으면 문상객이 몰려오지만 정작 장관이 죽으면 문상객 대신 찬바람이 몰아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혼자 있을 때는 홀수의 외로움이 지겨워 짝수를 희망하지만 짝수가 되고 나면 벽과 틈이 생겨 삭풍이 몰아칠 수도 있을 터이다.

대화는 날이 갈수록 단절되고 이해의 폭은 세월의 톱니바퀴처럼 지겹도록 졸아든다. 불만과 권태는 시계추처럼 멈추질 않고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싶은 충돌은 어둠만큼 비례하여 삼시세끼처럼 일어난다.

생각을 바꾸고 입장 바꿔 상대방 입장과 처지를 부처님처럼 받아들이려 해도 싸가지 없고 싹수 노란 절망의 늪은 용서를 멀리한다.

옷깃 한번 스친 것도 인연이라지만 차라리 생명의 옷까지 벗고 싶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를 생활의 언어로 삼아 칭찬의 부드러운 말 보시(布施)를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라지만 상대자로부터 듣고 싶을 뿐 닫혀 있는 마음만큼 입도 열리지 않는다.

밖에서는 리더(Leader)요 지도자요, 사람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집에서는 쪼다에다 머저리, 말이 없는 등신에다 자기만 챙기는 병신이다. 생각의 윤회(輪廻)를 줄여 보살심으로 받아들이며 용서하며 입장 바꿔 생각하려해도 목소리와 몸짓에서 구린내 풍겨 오는 것은 어찌하랴!

인생은 짧다. 풀 끝에 맺힌 이슬 같다. 짧디 짧은 인생길에 반려자가 있어 행복하다. 팍팍하고 고단한 길도 둘이 함께 걸으면 힘이 된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은 자식 기르는 솔솔한 기쁨을 세상의 그 어떤 기쁨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찬물을 마시고 살아도 가족이 힘이요 행복이요 삶의 전부인 것이다. 부부끼리 토라지고 등 돌리고 싸움이 길어질 수 있으나 예로부터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 싱겁게 화해하고 하나가된다.

불교의 〈옥야경〉에서 만나는 일곱 가지 아내처럼 마음이 열리면 부모 같고 스승 같고 오누이 같고 친구 같은 반려자와 함께하는 것이다. 마음이 닫혀 있을 때에는 원수처럼 종처럼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반려자를 가볍게 멀리하는 법이다.

불교의 세 가지 보배는 가정에 있다
배우자는 부처님, 자녀는 나한님이다

아내와 남편은 같은 사람인데 마음의 변화에 의해 7가지 아내 7가지 남편으로 분별하는 분별심을 경계할 일이다. 부부인연 자식인연은 하늘이 정해준 소중한 인연으로 천륜(天倫)이라 하지 않던가. 말 한마디 행동 한 점에도 마음을 담아 천 번이라도 용서하고 만 번이라도 사랑하며 받아들이는 자비로 살 일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보배(三寶)는 사찰의 기도도량에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 있다. 아내와 남편은 움직이는 부처님이요 아이들은 장난을 즐기는 나한(羅漢)들이다. 가정의 행복과 평화는 진리를 상징하는 법(法)이요 가정의 화해(和解)와 바른 교육은 화합(和合)을 상징하는 승(僧)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다. 숨어있지 않고 드러나 있는 것이다. 어차피 세상은 빛과 어둠이 반반이다. 〈법화경〉의 가르침처럼 사람을 부처로, 〈화엄경〉의 교훈처럼 일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一切唯心造)됨을 두고두고 잊지 말 일이다.

시대정신 제시한 禪, 새 조류 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선수행이 시작된 것은 신라 말 구산선문이 일어나면서부터다. 원효, 의상의 시대에서 100여 년이 지난 이후 중국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다. 최초의 선을 전래한 사람이 도의국사(道義國師)다. 도의국사는 현재 조계종 종조(宗祖)로 추앙받는 스님으로 784년 선덕왕 5년에 당나라 사신을 따라 유학을 가서 오대산으로 들어갔다가 광부(廣府)의 보단사(寶壇寺) 계단에서 비구계를 받는다.

그리고 조계산으로 가서 육조 혜능대사의 영정을 참배한 후 강서(江西)에 있는 홍주(洪州) 개원사를 찾아가 서당지장(西堂智藏)을 친견하고 스승으로 받들어 가르침을 받고 서당의 법을 전해 받았다.

이때 서당이 도의라는 호를 지어주면서 "그대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구에게 법을 전해 주랴."고 말했다 한다. 〈경덕전등록〉에 수록된 내용에 지장의 제자 4명 가운데 계림도의선사(鷄林道義禪師)라는 이름이 나온다. 도의는 다시 백장회해(百丈懷海)를 찾아갔다. 법을 물으며 대화를 나눈 후 백장도 "강서의 법이 모두 동국(東國)의 스님 것이구나"하고 감탄을 하였다고 한다.

도의 국사는 821년에 신라도 귀국했다. 그가 선법을 펴려했으나 당시 신라 조정이 부패하고 의교수행(依敎修行)의 관습에 젖어 있던 불교계가 불입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指人心)의 선의 기치를 마설(魔說)이라고 비방하며 배척하는 등의 일이 나타나자 법을 펼 시절인연이 미숙함을 알고 설악산 진전사(陳田寺)에 들어가 은둔생활을 한다. 그 기간이 40년이 되었다. 그러다가 제자 염거(廉居)에게 남종선을 전수하고 입적(入寂)하고 만다. 법을 전해 받은 염거도 제대로 선법을 펴지 못했다. 제자 보조체징(普照體澄)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입적하였다.

체징(體澄: 804~880)은 옹진(충남 공주)출신으로 어릴 때 출가해 도의의 법을 전해 받은 염거(廉居)를 찾아가 그의 법을 이은 도의의 손제자다. 체징도 당나라에 들어가 여러 선지식들을 참방하고 3년을 있다 840년에 귀국한 스님이다. 마침 체징이 860년 경 헌안왕의 권유로 전남 장성군 유치면 가지산 보림사로 이주를 하게 된다. 그는 이곳에서 김경언 등 신라 중앙 귀족들의 후원을 받아 산문을 연다. 이리하여 가지산문이 개창이 된 것이다.

그런데 체징이 개산하면서 도의를 제1조로 하고 염거를 2조로 자신을 3조로 하여 남종선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가지산문의 개창자를 도의로 보는 것이다. 이후 보림사 가지산문의 선맥이 고려말까지 이어져서 〈삼국유사〉를 쓴 일연(一然: 1206~1289)선사도 가지산문에 속한다.

이어 구산선문(九山禪門)이 차례로 개창되면서 마지막으로 개창된 긍양(兢讓)의 희양산문(曦陽山門)에 이르기까지 115년이 걸리면서 선법 수행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신라는 하대(809~935)에 이르면 왕위 쟁탈전과 사치, 부패 등으로 골품제가 와해되면서 통치력이 약화되고 지방 분권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등 왕조의 붕괴를 예고하는 조짐들이 도처에서 나타났다.

불교계 역시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채 왕실과 중앙 귀족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가 새로운 산문의 수행불교가 일어남에 새로운 형태로 변하게 된다. 새로운 사상에 목말라하던 신라의 스님들은, 선진사상이라 할 수 있는 선종을 배우기 위하여 당나라로 간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배움을 마치고 귀국하여서는, 선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불교를 일으키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선사들은 지방의 산간 오지에 선문을 개창함으로써 지방 호족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귀의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드높은 수도정신과 더불어, 선종 본래의 사원노동을 중시하고, 불성(佛性)의 보편성을 강조하여 신분의 고하를 묻지 않는 선사들의 태도는 일반 민중들의 광범위한 지지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구산선문은, 나말여초라는 격변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당시의 새로운 '시대정신' 으로 자리 매김 하면서 선법을 정착시켜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보살은 자비심으로 모든 것 품어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⑦ 보살의 이타행

饒益他品第十八

世間眾生爲己樂故。於生死中身心疲勞。菩薩心得休息悲心作饒益。他生死中除對治法更無有樂。菩薩除利益他更無有樂。菩薩得作利他歡喜樂。知利他者卽是自利。捨自己利愛利他樂。知利己樂卽是利他樂。知利他樂卽是利己樂。知利他樂時卽自己樂故。人有上中下。愚人者見他得樂心生苦惱。中人者己自苦時知苦。上人者見他樂時心生快樂。見他苦時如自己苦。菩薩四攝法中與他同利。云何同利。他苦則苦他樂則樂。是名同利。悲心平等無有他想。菩薩與眾生同苦同樂。菩薩自己身特生苦惱。何以故。不能救眾生苦故。不觀過去不觀未來。隨眾生意作滅苦對治。菩薩自意亦如他意。世間眾生與他利樂還望返報。菩薩與他利樂不望其報。菩薩雖悲心平等愛一切眾生。然於怨憎中倍與利樂。於怨憎邊與利樂時心中歡喜。如捨身命時歡喜者名爲平等。若不如是名不平等。於怨憎中倍與利樂者名稱悲心所作。

번역 | 요익타품 제18

세상의 중생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 생사 가운데 몸과 마음이 피로하지만, 보살은 마음에 휴식을 얻어 자비심으로 두루 이익케 합니다. 생사 가운데 대치하는 법을 버리면 즐거움이 없지만, 보살은 타인의 이익을 버리면 즐거울 게 없습니다. 보살은 이타행으로 환희의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이익임을 알아서 자신의 이익을 버리는 이타락(利他樂)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는 즐거움이 곧 이타심의 즐거움임을 알고, 이타락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즐거움임을 아는 것은 이타심으로 즐거울 때 곧 자신도 즐겁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상, 중, 하가 있거니와 어리석은 이는 타인이 즐거우면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고, 중인(中人)은 자신이 괴로울 때에야 괴로운 줄 알고, 상인(上人)은 남이 즐거울 때 마음에 쾌락이 생기고 남이 괴로울 때 자신도 괴롭습니다. 보살의 사섭법(四攝法) 가운데는 남에게 동리(同利) 베풂이 있는데, 무엇이 동리(同利)인가 하면, 타인이 괴로우면 곧 괴롭고, 타인이 즐거우면 곧 즐거운 것을 바로 동리(同利)라고 합니다. 자비와 평등으로 남이라는 생각이 없기에 보살은 중생과 더불어 괴롭고 함께 즐겁습니다. 보살 자신에게 특별한 괴로움이 생김은,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지 못해서 그렇거니와 과거도 미래도 살피지 않으며 중생의 뜻에 따라 괴로움을 없애도록 대치합니다. 보살은 자기 뜻을 남의 뜻으로 여기는데, 세상의 중생은 남에게 이익과 즐거움을 주면 도리어 보답을 바랍니다. 보살은 타인에게 이익과 즐거움을 주지만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보살은 오직 자비심과 평등으로 일체 중생을 사랑하기에 원망하고 미워해도 배나 이익과 즐거움을 줍니다. 원망과 미움의 경계에서 이익과 즐거움을 줄 때 심중에 기쁘고 몸과 목숨을 버리듯 하는 것을 평등이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으면 불평등이며 원망과 미움 가운데 배나 이익과 즐거움을 주면 자비심 짓는다고 합니다.

해설 | 새벽안개 자욱하게 내려앉은 거리에 가로등 하나가 거리를 다 비추는 법이고, 캄캄한 중생의 마음에 지혜 한 줄기 비취면 삼계를 훌쩍 벗어나는 법이다. 원망과 미움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같이 원망하고 미워하며 아귀다툼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헐떡이는 그 마음을 자비로 돌려세울 수 있다면 그가 곧 보살마하살이다. 염불은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일이다. 명호를 부른다는 것은 불보살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일임에도 우리는 그 염불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갈구하지 않는지 살펴볼 일이다. 기도란 평등심으로 돌리는 일이자 자비심 짓는 마음 바탕을 닦는 일임을 자꾸 되새겨야만 하겠다.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7년 7월 15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시련, 대련, 관욕(기초부터 시작)
◇원서교부 : 2017년 7월 15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자비명상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개강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017년 8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 혜화관 3층 미래융합세미나실

힐링멘토 마가스님의 (사)자비명상 교육과정

❶ 심리 명상 자격교육
자비명상 지도자
(스님 / 조계종 인증점수 교육)
9. 4(월) 14시 ~ 16시 개강
동국대 평생교육원 15주 35만원

❷ 마인드힐링지도사 2급
9. 7(목) 18:30 ~ 21:30 개강
동국대 평생교육원 20주 60만원

❸ 차 명상 지도사
9. 4(월) 17:30 ~ 20:00 개강
동국대 평생교육원 15주 45만원

❹ 인성교육 자격교육과정
어린이 인성교육지도사
9. 7(목) 14 ~ 17시 개강
동국대 평생교육원 15주 45만원

❺ 전문 심화교육
마인드힐링 1급 과목
한 과목 35만원 / 4 과목 100만원

[교과과정]
■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과정
9. 7(목) 16시 ~ 18시 개강 12주
■ 깨달음의 심리학 – 문진건 박사
9. 7(목) 19시 ~ 21시 개강 12주

[수행과정]
■ 마가스님의 나를 바꾸는 100일 수행
매일수행. 수행일지 & 모바일
마가스님 1:1 면담
■ 집단상담
굴암사 1박 2일(3회)

동국대 평생교육원 접수 문의 ☎ 02-2260-3728
자비명상 문의 02-2682-0260 / sms,sns 문의 010-4804-4108